

# ‘역시 천적’ 최지만, 게릿 콜 상대 투런포... 팀은 ‘패배’

양키스, 홈런 4방 몰아치며 탬파베이 9-3으로 제압

1-2로 뒤진 4회말 무사 1루 상황서 통타·투런 아치

정규시즌서 콜 상대 통산타율 0.667...강한면모 자랑

역시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은 ‘3억달러의 사나이’ 게릿 콜(30·뉴욕 양키스)의 ‘천적’이었다. 가을야구 무대에서 최지만은 콜을 무너뜨렸다.

최지만의 분전에도 탬파베이는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5전3선승제) 1차전을 내줘 아쉬움을 남겼다.

최지만은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린 양키스와의 2020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ALDS 1차전에 4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 4회말 콜을 상대로 역전 투런포를 때려냈다.

팀이 1-2로 뒤진 4회말 무사 1루 상황에 두 번째 타석을 맞은 최지만은 콜의 3구째 시속 95.8마일(약 154.2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 가운데 펜스를 넘기는 투런 아치를 그려냈다.

최지만의 올해 포스트시즌 첫 안타다.

최지만은 정규시즌 경기에서 콜을 상대로 통산 타율 0.667(12타수 8안타) 3홈런 8타점 3볼넷으로 강한 면모를 자랑했다.

올해 정규시즌에 최지만이 3개의 홈런을 쳤는데, 그 중에 2개가 콜을 상대로 뽑아낸 것이었다.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는 최지만이 콜을 상대로 5타수 1안타에 그쳤다. 최지만의 올해 정

규시즌 성적도 타율 0.230 3홈런 16타점으로 썩 좋지 못했다. 지난달 13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일찍 접어 공백기도 있었다.

그러나 탬파베이는 정규시즌 통산 맞대결 성적에 더 무게를 두고 콜이 양키스 선발로 나선 ALDS 1차전에서 최지만에게 4번 타자 중책을 맡겼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ALWC)에서 대타로만 출전했던 최지만은 ‘콜 사냥꾼’에 성공하며 팀의 기대에 부응했다.

지난 겨울 역대 투수 최고액인 9년 3억2400만달러(약 3838억원)를 받고 양키스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은 콜은 경기 수로 조정하기 전 올해 연봉이 3600만달러였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몸값을 자랑하는 콜은 정규시즌에 이어 가을야구에서도 연봉 85만달러인 최지만 앞에서 작아졌다.

콜은 5회말 2사 1, 3루의 위기에서 만난 최지만에게 볼 2개를 던진 후 벤치와 상의 끝에 고의4구를 헌납하며 체면을 구겼다.

최지만이 ‘콜 사냥꾼’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탬파베이는 3-9로 석패했다.

2010년 이후 10년만에 AL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해 AL 1번 시드를 받은 탬파베이는

ALWC에서 토론토를 2연승으로 꺾고 ALDS에 진출했지만, 첫 판을 내줘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AL 동부지구 2위로 5번 시드인 양키스는 ALWC에서 홈런 7방을 몰아치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2연승으로 물리쳤고, ALDS 1차전에서도 홈런 군단의 위용을 자랑하며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ALWC 1차전에서 홈런 4방, 2차전에서 홈런 3방을 때려낸 양키스는 이날도 홈런 4방을 쏟아내며 탬파베이 마운드를 두들겼다.

콜은 ‘천적’ 최지만을 넘지 못했으나 6이닝 6피안타(2홈런) 8타점 2볼넷 3실점으로 제몫을 다해 승리 투수가 됐다.

양키스의 대포를 당해내지 못한 탬파베이 에이스 블레이크 스넬은 5이닝 6피안타(3홈런) 4실점을 기록하고 패전의 멍에를 썼다.

양키스가 1회초 애런 히스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올렸으나 탬파베이는 이어진 1회말, 랜디 아로사레나의 중월 솔로포로 순식간에 균형을 맞췄다.

탬파베이는 3회초 블레이크 스넬이 클린트 프레이저에 좌중월 솔로 홈런을 헌납해 1-2로 뒤졌다.

하지만 4회말 최지만의 투런 홈런으로 응수하며 다시 리드를 가져갔다.

탬파베이의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다.

양키스는 5회초 선두타자 카일 히가시오카가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날려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DJ 르메이유가 유격수 땅볼을 물러난 뒤에는 애런 저지가 역전 좌월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다.

탬파베이는 5회말 최지만이 고의4구로 걸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이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2020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 1차전에서 4회말 역전 투런포를 때려낸 후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어나가면서 2사 만루 찬스를 잡았으나 매뉴얼 마르고 삼진으로 돌아서 땅을 쳤다.

이후에도 탬파베이는 양키스 불펜에 막혀 좀처럼 점수를 내지 못했다.

살얼음판 리드를 잘 지키던 양키스는 9회초 1사 1, 2루에서 히스의 적시타로 1점을 보냈고, 타일러 웨이드의 볼넷으로 이어진 만루 찬스에서 지안카를로 스텐튼이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그랜드슬램을 작렬해 9-3으로 앞서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최지만도 4회 투런 홈런, 6회 고의4구 이외 타석에서는 출루에 실패했다.

1회말 첫 타석에서는 3루수 플라이로 물러났고, 8회말에는 2루 땅볼을 치는데 그쳤다.

3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최지만의 포스트시즌 타율은 0.333(6타수 2안타)이 됐다.

한편 탬파베이와 양키스의 ALDS 2차전은 7일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다.

뉴시스

## “고민 안겨줘 땡큐” 최원준 입대 놓고 쿨한 윌리엄스 감독

“아직 여유 있는 만큼 시즌 더 소화하고 입대할 것으로 보여”



특급 리드오프 외야수 최원준

땡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이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됐다. 특급 리드오프 재탄생한 외야수 최원준(23)의 병역 문제이다. 프로야구 선수들도 병역 의무 이행이 순전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그러나 동시에 팀 전력의 밸런스를 고려하면서 순서를 정해 입대를 한다.

최원준은 이창진이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하

자 대신 1번타자로 나서 화려한 타격을 펼치고 있다. 9월 한 달동안 타율 3할7푼4리(91타수 34안타)의 고공행진을 했다. 2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펼쳤다. 9월 출루율도 4할5푼2리로 리그 2위에 올랐다. 월간 25득점을 올려 공동 1위에 올랐다.

10월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제 4경기에 불과하지만 16타수 7안타, 타율 4할3

푼8리를 기록 중이다. 출루율은 4할7푼1리이다. 9월 이후의 성적만 본다면 한화로 이적한 이용규 이후 제대로 된 리드오프를 만났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우승 당시엔 이명기(NC 이적)가 리드오프로 제몫을 했다.

최원준은 2016년 입단 이후 자신의 포지션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8년 멀티플레이어로 101경기에 뛰면서 331타석을 소화하는 등 제몫을 했지만 작년까지 나머지 3년은 험거운 시간이었다. 올해도 기복이 있는 타격과 수비로 주전에서 밀려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의지로 리드오프와 중견수 자리를 꿰찼다.

최원준의 급부상과 함께 본인은 물론 KIA 구단, 윌리엄스 감독까지 고민을 안게됐다. 아직 병역의무를 언제 수행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요즘은 복무 기간이 줄어 두 시즌까지 통째로 빠지지 않지만 최원준에게는 이제서야 타격의 맛을 알게됐는데 바로 군입대를 하기도 어렵다. 현행 병역법은 27살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아직은 여유가 있는 만큼 시즌을 더 소화하고 적절한 시점을 정해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연기 기한까지 미루기도 어렵다. 윌리엄스 감독은 “한국 선수들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특성을 잘 알고 있다. (최원준이) 언제 입대할 것인지 고민을 안겨주는 것만도 좋은 일이다”라고 쿨하게 반응했다.

## 2020~2021 프로농구 타이틀스폰서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오는 9일 개막하는 2020~2021시즌 프로농구 타이틀스폰서를 맡았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6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2020~2021시즌 개막 미디어데이에 앞서 현대모비스가 타이틀스폰서를 맡았다고 전했다.

전 시즌 챔피언의 모기업이 타이틀스폰서를 맡아왔지만 지난 시즌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도중에 끝났다.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원주 DB와 서울 SK의 공동 1위를 결정했다.

정규리그는 내년 4월6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열린다.

공식 개막전은 SK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대결로 9일 SK의 홈구장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2016~2017시즌부터 매년 12월31일에 열리는 ‘농구영신 매치’는 안양 KGC인삼공사와 원주 DB의 대결로 정해졌다.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는 지난 시즌과 달리 월요일 경기가 신설됐다. 경기 시간은 평일은 오후 7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2시와 6시다.

군산을 제2연고지로 삼고 있는 전주 KCC는 12월22일, 내년 1월2일과 10일 홈경기를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기로 했다.



## 벤투호-김학범호 ‘스페셜 매치’ 경기 성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처음 태극전사들이 모였다.

파울루 벤투 감독의 A대표팀과 김학범 감독의 올림픽대표팀이 5일 파주NFC에 입소했다. 두 팀은 오는 9일과 1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두 차례 ‘스페셜매치’를 갖는다.

코로나19로 월드컵과 도쿄올림픽이 모두 연기되면서 중단된 A매치를 살리기 위해 대한축구협회가 이색 경기를 성사시켰다.

이번 대결은 국내파만 소집됐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자가 격리로 유럽과 중국, 일본, 중동 등에서 뛰는 해외파 선수들이 제외됐다.

벤투호와 김학범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파주NFC에 입소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림픽대표팀은 오후 1시에, A대표팀은 오후 3시로 동선을 나눴다.

선수들은 파주NFC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한 뒤 들어왔다. 형님인 A대표팀은 1인 1실을 사용하고, 아우인 올림픽대표팀은 2인 1실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부에 숙소를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림픽대표팀까지 1인 1실을 쓰기에 방이 부족하다. 일부 코치진과 스태프도 2인 1실을 사용한다”라고 설명했다.

훈련 시간도 나뉘었다. 사용하는 구장은 다르지만, 첫날 올림픽대표팀이 오후 3시 30분부터 훈련을 시작했고, A대표팀은 오후 5시부터 한 시간가량 발을 댔다.

A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이 맞대결을 갖는 건 1996년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엔 A대표팀에 2-1로 이겼다.

이벤트 성격이 강한 경기지만, 양 팀에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축구를 이어갈 귀중한 시간이다.

2022년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도전하는 벤투호는 지난해 12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이후 10개월 만의 소집이다.

올 초부터 퍼진 코로나19 사태로 A매치를 단 한 번도 치르지 못했다. 월드컵 예선도 모두 내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A대표팀이 멈춘 사이 K리그 경기장을 다니며 새 얼굴 발굴에 나선 벤투 감독은 이번 소집에 김지현, 김영민(이상 강원), 원두재(울산), 이동준(부산), 이창근(상주) 등을 첫 발탁했다.

벤투 감독은 “기존 선수들은 해왔던 것을 복습하고, 새로운 선수들은 많은 걸 얻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김학범호도 지난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이후 처음으로 모였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도쿄올림픽이 끝났을 시점이지만, 코로나19로 내년으로 올림픽이 연기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랜만에 파주에 입소한 김학범 감독은 “이제야 살아있는 기분”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번 소집에선 올림픽대표팀 주축이었던 이동준, 이동경, 원두재 등이 A대표팀으로 이동했다. 대신 올해 K리그 영플레이어상이 유력한 송민규(포항), 이광연(강원)이 김학범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단 송민규다. 그는 이번 시즌 K리그에서 10골 5도움을 기록 중이다.

송민규는 “대표팀에 발탁돼 영광스럽다. 너무나 기쁘고 설렌다”라면서 “형들에게 무조건 진다는 생각은 안 한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